



1인가구 맞춤형
행복정책 시리즈

you're **NOT** alone 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⑤

노인 1인가구,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위한 정책과제

노후가 행복한 나라에 미래가 있다

요약

■ 노인 1인가구 가구의 특징

| | 전기노인 | | 후기노인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1인가구 사유 | 본인 독립생활, 가족의 타지 거주 | 가족과 사별, 가족의 타지 거주 | 가족과 사별, 가족의 타지 거주 | |
| 소득분포 (10분위) | 1분위: 42.2% 2분위: 21.7% | 1분위: 39.0% 2분위: 27.7% | 1분위: 54.9% 2분위: 24.6% | 1분위: 69.7% 2분위: 21.7% |
| 주요 소득원 |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 | 공적이전소득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 주요 소비지출 | 식료품, 주거비 | | 식료품, 의료비, 주거비 | |
| 주거 형태 점유 형태 | 아파트, 다가구주택. 자가비율 51% | | 아파트, 일반단독주택. 자가비율 65% | |
| 사회적 지원 관계망 부재율 | (가사)돌봄 40.1%, 경제(금전도움) 70.6%, 정서(이야기 상대) 34.2%. 세 가지 모두 23.5% | | (가사)돌봄 29.5%, 경제(금전도움) 75.1%, 정서(이야기 상대) 33.5%. 세 가지 모두 17.8% | |
| 주관적 건강인식 (건강함) | 60.9% | 52.2% | 33.3% | 24.7% |
| 필요 복지서비스 | 고용(취업), 소득지원 | | 노인돌봄, 소득지원 | 노인돌봄, 보건의료·건강관리 |

■ 건강한 노년, 존엄한 노년을 위한 1인가구 정책

○ 활기찬 노년을 위한 행복인프라 구축

- 삶의 만족도 증진과 연관된 소득, 사회관계망, 건강(만성질환), 고령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보조를 위한 돌봄지원 인프라 확대

○ 일자리와 생계보장

- 건강한 노인의 경제활동은 생계비 마련의 목적 이외에도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관계망 활성화의 주요 수단이라는 점에서 노인일자리 환경 개선(차별금지 등의 인권개선) 감시 기능 강화
- 고령자친화기업 지원 확대 및 퇴직 후 계속고용 유도를 위한 지원금 상향
- 공공근로 수당 상향,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로 연계 및 완화
- 75세 이상 빈곤노인에 대한 한시적 보충형 공적지원 제도 도입

○ 주거, 건강, 사회활동 지원 다각화

- 저소득 1인가구 노후주택, 쪽방 등 주택개선사업 확대. 주거급여 상향. 돌봄지원주택 건립
- 만성질환을 포함한 통합적 노인건강관리체계 구축
- 각종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스마트경로당과 같은 지역사회 노인공동체 활성화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노인 1인가구 기본 현황

○ 분석 기준

- 기본분석 단위를 전기노인(young-old)과 후기노인(old-old)으로 구분
- 노인 연령은 경제활동의 은퇴연령과 연관이 있으나(65세 이상), 이번 1인가구 정책시리즈에서는 크게 세 가지 연령대로 세대구분을 하고 있는 바, 청년(20~30대), 중장년(40~50대) 이후를 노령기로 정의하고 60~74세를 전기노인, 75세 이상을 후기노인으로 구분하고자 함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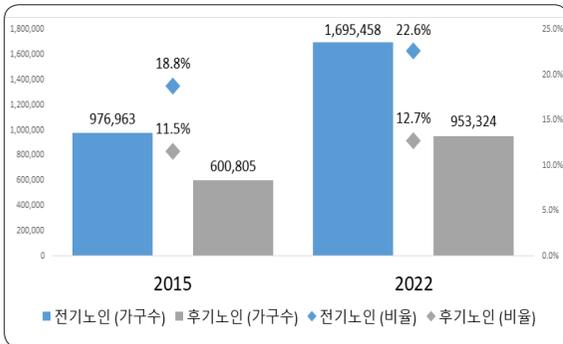
- 생물학적 측면: 전기노인은 후기노인에 비해 비교적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반면, 후기노인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심리사회학적 측면: 전기노인의 경우 은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 축소, 고독감의 경험,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는 반면, 후기노인은 만성질환과 일상생활 기능저하로 인한 심리적 좌절과 우울감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관계적 측면: 후기노인일수록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경험하는 경향

자료: 성혜연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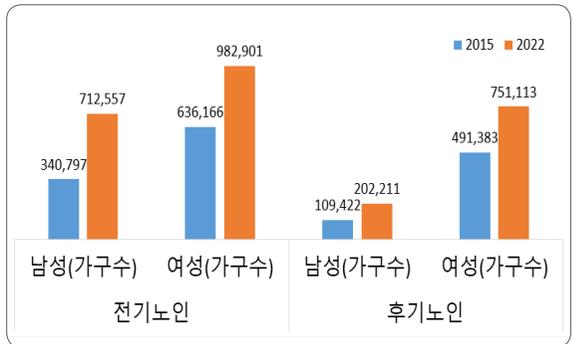
○ 노인 1인가구의 증가 추이

- 후기노인에 비해 전기노인 1인가구 비중 증가세 뚜렷
- 전기노인 중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최근 7년간 증가율은 남성 1인가구가 가장 높음

[그림1] 노인 1인가구 증가 추이



[그림2] 노인 1인가구 성별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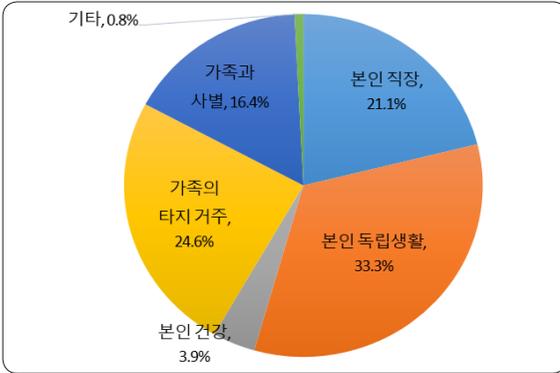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에서 재구성.

*가구 비율은 전체 1인가구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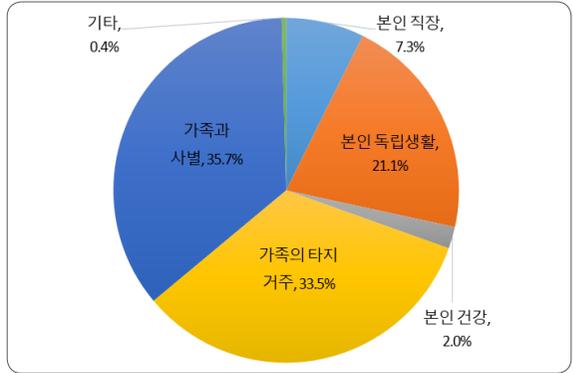
○ 노인 1인가구 사유

- 전기노인 1인가구의 경우, 남성은 자발적 사유(본인 독립생활을 위하여), 여성은 사별과 가족의 타지 거주 사유가 가장 큼
 - 경제활동인구 연령인 60~64세를 제외하면, 직장 사유가 줄고 사별 사유가 증가
- 후기노인 1인가구의 경우, 남녀 모두 사별과 가족의 타지 거주가 대부분의 사유를 차지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발적 사유는 줄고, 사별 등의 비자발적 사유 증가
- 전후기 모두 본인 직장과 자발적 사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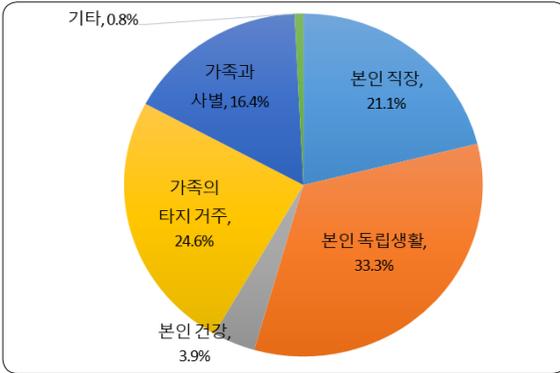
[그림3] 남성 전기노인 1인가구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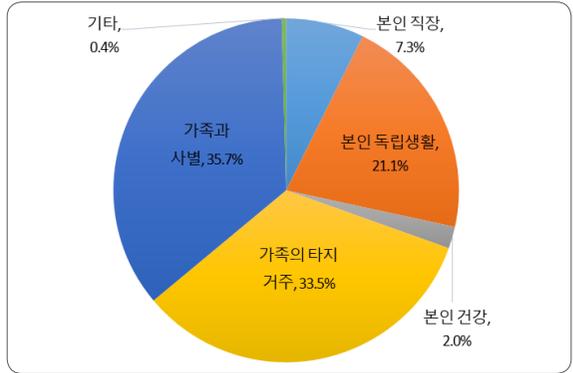
[그림4] 여성 전기노인 1인가구 사유



[그림5] 남성 후기노인 1인가구 사유



[그림6] 여성 후기노인 1인가구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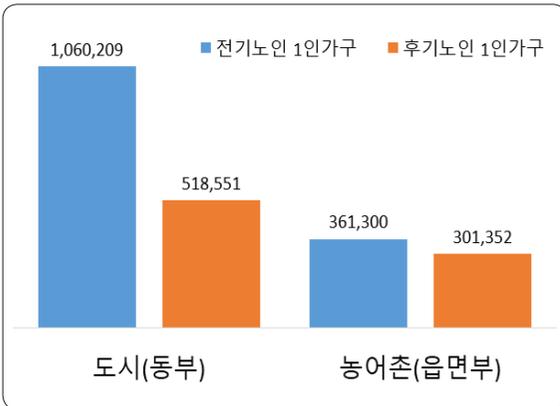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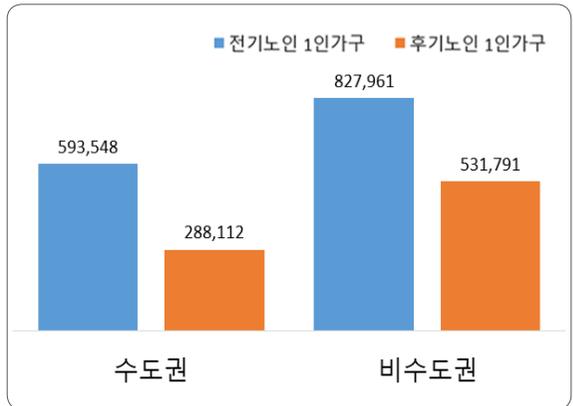
○ 노인 1인가구의 전국 분포

- 전기노인 1인가구의 74.6%, 후기노인 1인가구의 63.2%는 도시(동부)에 거주
- 전기노인 1인가구의 58.2%, 후기노인 1인가구의 64.8%는 비수도권에 거주

[그림7] 거주지역(도시 vs. 농어촌, 가구수)



[그림8] 거주지역(수도권 vs. 비수도권,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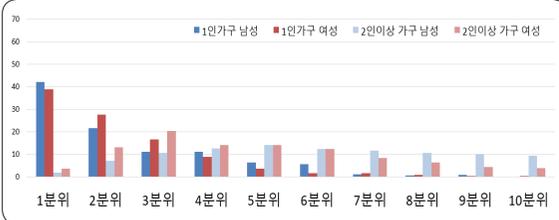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에서 재구성.

2. 노인 1인가구의 소득과 지출

○ 소득 1~2분위에 노인 1인가구가 다수 점유

- 한국의 OECD 최고 노인빈곤율은 노인 1인가구의 높은 빈곤율이 직접적인 원인

[그림9] 전기노인 1인가구 소득분포(%)



[그림10] 후기노인 1인가구 소득분포(%)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 원자료 분석(직장사유 독립가구 제외).

- 소득분포([그림9]와 [그림10]와 소득구성([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기노인보다는 후기노인 1인가구의 저소득 문제 현저

- 전기노인 남성 1인가구 주요 (경상)소득원은 근로소득(40.0%)과 공적이전소득(33.5%)
- 전기노인 여성 1인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33.6%)과 근로소득(26.9%)
- 후기노인 남성 1인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51.1%)과 재산소득(19.2%)
- 후기노인 여성 1인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52.7%)과 사적이전소득*(24.5%)

*노인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노인 1인가구(독거노인, 65세 이상)는 비동거 자녀로부터 54.2%가 정기적 현금지원을, 86.3%가 비정기적 현금지원을, 76.9%가 현물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 노인 1인가구 전기-후기, 성별 소득구성(단위: 만원, 연간)

| 구분 | 성별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처분가능소득 |
|------|----|-------|-------|-------|--------|--------|--------|
| 전기노인 | 남성 | 874.4 | 389.5 | 101.7 | 733.9 | 88.7 | 1938.9 |
| | 여성 | 556.2 | 309.5 | 272.8 | 694.6 | 235.0 | 1794.2 |
| 후기노인 | 남성 | 136.3 | 118.7 | 323.0 | 860.2 | 246.7 | 1486.3 |
| | 여성 | 82.5 | 42.2 | 157.5 | 652.5 | 303.2 | 1143.8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 원자료 분석(직장사유 독립가구 제외).

○ 노인 1인가구의 지출구조

- 전기-후기 모두 노인 1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이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식료품비와 주거비
- 후기노인은 전기노인에 비해 의료비 비중이 높아지고, 교통비 비중이 낮아짐

• 고령으로 갈수록 커지고, 사회활동이 줄어든다는 의미

- 비소비지출 중에서는 평균적으로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지출* 항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

*노인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노인 1인가구(독거노인, 65세 이상)는 비동거 자녀에게 12.1%가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23.4%가 비정기적 현금지원을, 35.7%가 현물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가장 많은 집단은 전기노인 중 남성 1인가구(33.3%), 가구 간 이전지출이 가장 많은

집단은 후기 여성 노인 1인 가구(35.1%), 세금 비중은 후기 남성 노인 1인 가구(34.4%), 대출 등에 의한 연간지급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전기 여성 노인 1인 가구(28.4%)

[표2] 노인 1인가구 전기-후기, 성별 지출구성(단위: 만원, 연간)

| 구분 | 성별 | 소비지출 | | | | | | 비소비지출 | | | | |
|------|----|--------|--------|--------|--------|-------|--------|-------|------------|-----------|------------|--------|
| | | 식료품 | 주거비 | 의료비 | 교통비 | 통신비 | 기타* | 세금 | 공적연금/사회보험료 | 가구 간 이전지출 |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 연간지급이자 |
| 전기노인 | 남성 | 445.83 | 247.5 | 160.33 | 140.32 | 59.52 | 290.33 | 41.69 | 83.09 | 78.93 | 8.03 | 37.52 |
| | 여성 | 396.75 | 242.63 | 158.51 | 68.81 | 50.19 | 247.67 | 66.04 | 64.4 | 45.77 | 19.87 | 77.76 |
| 후기노인 | 남성 | 380.86 | 198.42 | 212.78 | 52.75 | 53.39 | 171.5 | 68.21 | 36.06 | 43.14 | 3.69 | 47.44 |
| | 여성 | 301.17 | 177.84 | 166.28 | 27.52 | 30.48 | 119.15 | 20.86 | 15.47 | 32.93 | 9.17 | 15.51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 원자료 분석(직장사유 독립가구 제외).

*기타 소비지출: 오락문화, 의료실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

3. 노인 1인가구의 자산·부채 및 주거형태

○ 노인 1인가구의 자산과 부채구성

- 노인 1인 가구는 중장년 이하 1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 소유
 - 자가 주택(실물자산)이 자산구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부채 중 임대보증금 비중이 전기노인 여성 1인가구와 후기노인 남성 1인가구에서 높은 비율
 - 임대보증금은 실물자산/높은 자가비율과 연동된 것으로 이자소득 등으로 활용가능

[표3] 노인 1인가구 전기-후기, 성별 자산과 부채 구성(단위: 만원, 연간, 청년/중장년 비교)

| | | 전기노인 | | 후기노인 | | 청년 | | 중장년 |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자산 | 금융자산 | 3,807.5 | 5,534.3 | 3,020.4 | 2,661.1 | 8,429.2 | 10,551.2 | 6,755.8 | 8,581.1 |
| | 실물자산 | 11,557.5 | 24,017.7 | 31,034.0 | 13,336.1 | 7,388.3 | 5,471.3 | 13,029.6 | 0,212.0 |
| 부채 | 금융부채 | 1,500.0 | 2,308.3 | 1,442.1 | 336.1 | 4,837.3 | 4,753.9 | 3,424.6 | 3,273.3 |
| | 임대보증금 | 421.0 | 1,762.4 | 1,259.6 | 347.3 | 916.3 | 356.0 | 344.0 | 1,542.8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 원자료 분석(직장사유 독립가구 제외).

○ 노인 1인가구의 주거 및 점유형태

- 전기노인 1인가구의 주요 주거형태는 아파트, 단독주택 순
- 후기노인 1인가구는 일반단독주택의 비중 증가
 - 후기노인 1인가구에서 전기노인에 비해 주택 이외 거처 비율이 낮은 것은 주택으로의 이주요인보다는 사망 혹은 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자연감소가 큰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현재 일반단독주택 거주자의 이전 주택형태에서 주택 이외거처 이주 비율 1.3%에 불과

[표4] 노인 1인가구 주거형태(%)

| | 아파트 | 단독주택 | | | 다세대 주택 | 연립 주택 | 비거주용건물 (상가·공장·여관 등) 내 주택 | 주택 이외의 거주 | | | |
|------|------|------|------|-------|--------|-------|--------------------------|---------------------|------|-----|-----|
| | | 일반 | 다가구 | 영업 겸용 | | | | 판잣집·비닐하우스 컨테이너·오피스텔 | 오피스텔 | 고시원 | 기타 |
| 전기노인 | 38.2 | 17.7 | 19.0 | 3.5 | 9.1 | 2.2 | 2.7 | 0.8 | 1.3 | 3.1 | 2.5 |
| 후기노인 | 36.0 | 36.8 | 14.1 | 1.5 | 6.0 | 2.3 | 1.6 | 0.2 | 0.4 | 0.5 | 0.6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21. 원자료 분석.

- 노인 1인가구는 다른 세대 1인가구에 비해 주거의 자가비율이 매우 높음

- 자가 및 무상주택 비율이 고령화에 비례해서 높아짐
- 무상주택의 경우, 후기 노인 1인가구는 주택이외 거처의 20.2%, 연립주택의 12.9%, 단독주택의 11.7%, 아파트의 8.8%, 다세대주택의 8.4% 차지

[표5] 1인가구 세대별 주거 점유형태(%)

| | 자가 | 전세 | 보증금 있는 월세 | 보증금 없는 월세 | 사글세 또는 연세 | 무상 |
|-------|------|------|-----------|-----------|-----------|------|
| 전기 노인 | 50.5 | 9.7 | 27.2 | 5.6 | 0.6 | 6.4 |
| 후기 노인 | 64.6 | 6.7 | 16.0 | 1.5 | 0.7 | 10.5 |
| 청년층 | 6.3 | 21.3 | 61.4 | 5.2 | 1.1 | 4.7 |
| 중장년층 | 27.4 | 14.0 | 42.5 | 8.7 | 0.6 | 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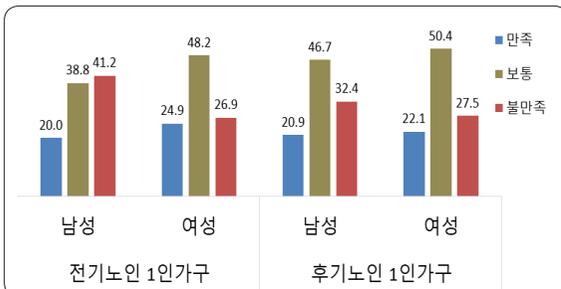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21. 원자료 분석.

4. 노인 1인가구의 사회관계 및 건강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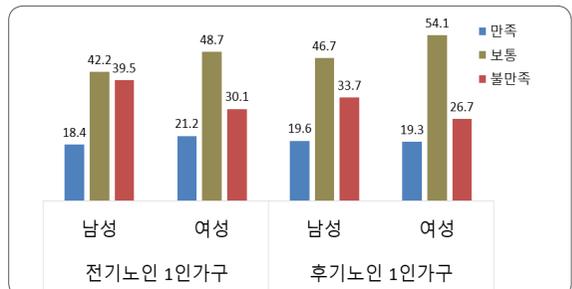
○ 노인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와 성취도

- 삶의 만족도와 성취도 모두 전기노인 1인가구가 후기노인 1인가구보다 불만족 비율이 다소 높음
 - 자가 주택(실물자산)이 자산구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삶의 만족도와 성취도 모두 사회적 관계망 유무([그림13]과 [그림14])와 관련이 있음
 - 사회적 관계망이 존재하는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보다 만족도와 성취도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음
- 여성 노인 1인가구가 남성 노인 1인가구보다 삶의 불만족도와 성취도 불만족도가 낮음

[그림11] 노인 1인가구 삶의 만족도(성별)



[그림12] 노인 1인가구 성취도(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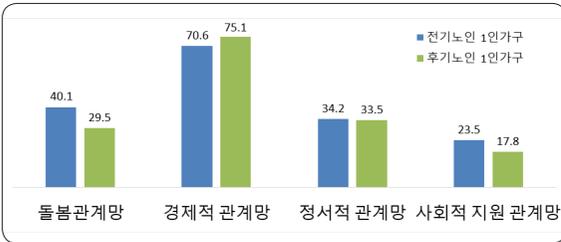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1. 원자료 분석(가구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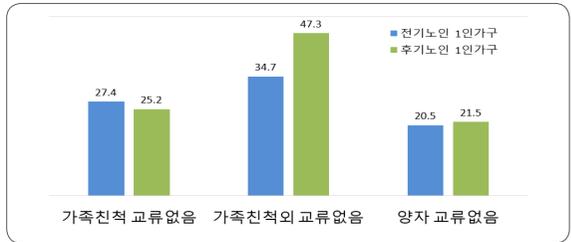
○ 노인 1인가구의 고립감

- 사회적 지원 관계망* 부재는 전기노인 1인가구가 후기노인 1인가구보다 높은 비중 차지
 - *돌봄(가사도움), 경제(금전도움), 정서(이야기 상대)적 관계가 모두 부재한 경우
- 사회적 교류 관계망 부재**는 후기노인 1인가구가 전기노인 1인가구보다 높은 비중 차지
 - **가족친척, 가족친척외 교류가 모두 없는 경우
- 전기노인 1인가구는 가사도움(돌봄), 가족친척 교류의 부재가 상대적인 고립감의 주요 원인
- 후기노인 1인가구는 경제적 도움, 가족친척외 교류의 부재가 상대적인 고립감의 주요 원인

[그림13]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 관계망 부재



[그림14]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교류 관계망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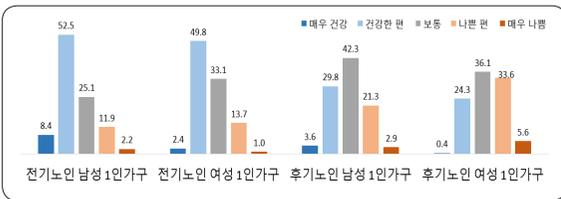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1. 원자료 분석(가구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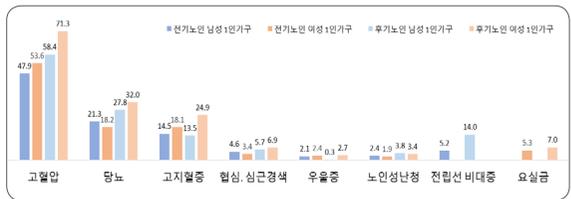
○ 노인 1인가구의 건강인식과 건강상태

- 고령화에 따라 후기노인 1인가구가 전기노인 1인가구보다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쁘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건강 인식이 더 부정적
- 후기 노인기로 갈수록 주요 만성질환 의사진단 유경험율이 높아짐
 - 남성 1인가구보다 여성 1인가구의 만성질환 유경험율이 높음

[그림15] 노인 1인가구의 건강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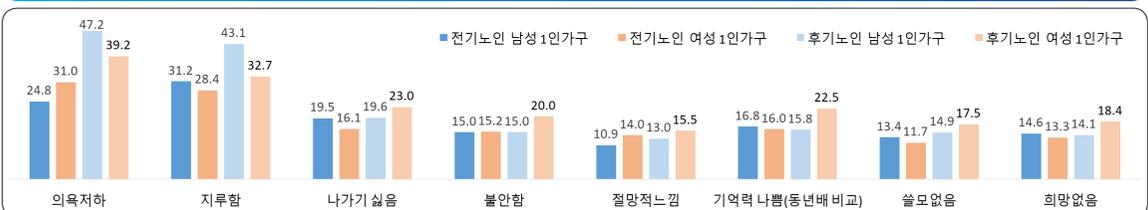
[그림16] 주요 만성질환 의사진단 유경험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1. 원자료 분석(가구주 기준).

- 우울증 척도가 되는 일상생활에서 의욕저하, 나가기 싫음, 지루함 등을 느끼는 비율도 고령화에 따라 상승
 - 전반적으로 후기노인 여성 1인가구의 우울증 척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그림17] 우울증 주요 척도 긍정응답 비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1. 원자료 분석(가구주 기준).

5. 건강한 노년, 존엄한 노년을 위한 1인가구 정책

○ 노인의 자립성(독립성)과 다양성 확대 속,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

- 노인 가구형태는 1인가구와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80% 이상(노인실태조사 2020)
- 소득과 자산, 자녀동거 관련 인식변화 등 자립성이 늘고 있지만, 노인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 연계가 상대적으로 취약
 - 전기노인 1인가구는 가족 간 교류, 후기노인 1인가구는 가족친척외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음
- 사회적 관계망 중 가장 취약한 것은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경제적 관계망으로, 이는 곧 소득 부족에서도 오는 생활상의 어려움이 노인 1인가구의 가장 큰 문제점임을 시사

○ 활기찬 노년을 위한 행복인프라 구축

- 삶의 만족도 증진과 연관된 소득, 사회관계망, 건강(만성질환), 고령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보조를 위한 돌봄지원 인프라 확대
- 노인 1인가구는 성별과 고령화 정도에 따라 향후 필요 복지서비스 요구 간 차이가 존재([표5])
 - 전기노인 1인가구: 남녀 모두 고용(취업), 소득지원, 여성은 보건의료
 - 후기노인 1인가구: 남녀 모두 노인돌봄, 남성은 소득지원, 여성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표6] 노인 1인가구(주)가 생각하는 향후 추가확대 필요 복지서비스 분야(1+2순위, %)

| | | 고용(취업) 지원 | 소득 지원 | 주거 관련 | 안전 관련 | 보건의료·건강관리 | 보육 관련 | 교육 관련 | 노인 돌봄 | 문화·여가 생활 지원 | 기타 |
|------|-------------|-----------|-------|-------|-------|-----------|-------|-------|-------|-------------|-----|
| 전기노인 | 남성 1인가구 | 22.1 | 20.9 | 12.1 | 6.1 | 17.7 | 1.2 | 2.0 | 12.3 | 5.3 | 0.3 |
| | 남성 2인 이상 가구 | 18.3 | 19.3 | 9.5 | 8.2 | 21.0 | 3.1 | 1.7 | 13.4 | 5.5 | 0.1 |
| | 여성 1인가구 | 15.3 | 22.1 | 11.5 | 7.3 | 21.1 | 2.3 | 1.0 | 14.8 | 4.5 | 0.1 |
| | 여성 2인 이상 가구 | 17.2 | 18.6 | 8.9 | 9.8 | 23.8 | 2.8 | 1.6 | 12.3 | 4.9 | |
| 후기노인 | 남성 1인가구 | 11.4 | 21.3 | 11.6 | 5.4 | 20.9 | 1.2 | 0.9 | 23.7 | 3.6 | |
| | 남성 2인 이상 가구 | 14.1 | 8.6 | 14.3 | 8.1 | 16.3 | 14.2 | 1.2 | 9.8 | 13.3 | |
| | 여성 1인가구 | 8.9 | 17.9 | 8.3 | 5.8 | 26.4 | 1.3 | 1.4 | 27.3 | 2.4 | 0.2 |
| | 여성 2인 이상 가구 | 10.0 | 20.0 | 7.6 | 5.4 | 26.6 | 1.6 | 2.0 | 24.2 | 2.5 |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1. 원자료 분석.

- 노인 1인가구의 공공시설 확충분야도 필요 복지서비스 요구 항목과 연계되어 있음([표6])

- 전기노인 1인가구: 남녀 모두 건강관리 및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시설과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확대를 요구. 후기노인보다는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 산책로, 공영주차시설이나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음
- 후기노인 1인가구: 남녀 모두 보건의료시설과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대 요구가 70% 이상

[표7] 노인 1인가구(주)가 생각하는 향후 추가확대 필요 공공시설 분야(1+2순위, %)

| | |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 공원, 녹지, 산책로 | 보건의료 시설 (공공병원, 보건소) |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노인복지 시설) | 공영 주차시설 | 문화예술 회관(시민 회관 등) | 도서관 | 생활체육 시설 | 기타() |
|-------|-------------|----------------|-------------|---------------------|-----------------------|---------|------------------|-----|---------|-------|
| 전기 노인 | 남성 1인가구 | 3.6 | 13.7 | 28.7 | 28.0 | 10.9 | 3.7 | 1.8 | 9.3 | 0.4% |
| | 남성 2인 이상 가구 | 8.6 | 16.2 | 25.8 | 20.3 | 14.7 | 4.1 | 1.1 | 9.0 | 0.1% |
| | 여성 1인가구 | 4.9 | 16.7 | 29.5 | 27.1 | 7.3 | 4.7 | 1.5 | 7.8 | 0.3% |
| | 여성 2인 이상 가구 | 9.0 | 17.3 | 27.1 | 23.9 | 10.1 | 3.9 | 1.2 | 7.3 | 0.1% |
| 후기 노인 | 남성 1인가구 | 2.7 | 13.9 | 36.8 | 35.7 | 4.5 | 1.6 | 0.1 | 4.4 | 0.4% |
| | 남성 2인 이상 가구 | 4.2 | 14.6 | 31.4 | 28.8 | 8.5 | 3.4 | 1.3 | 7.4 | 0.4% |
| | 여성 1인가구 | 3.0 | 13.7 | 36.2 | 35.8 | 3.8 | 1.6 | 0.9 | 4.4 | 0.5% |
| | 여성 2인 이상 가구 | 4.2 | 13.1 | 36.8 | 33.3 | 4.6 | 1.9 | 0.7 | 5.0 | 0.4%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1. 원자료 분석.

○ 노인 1인가구의 건강인식과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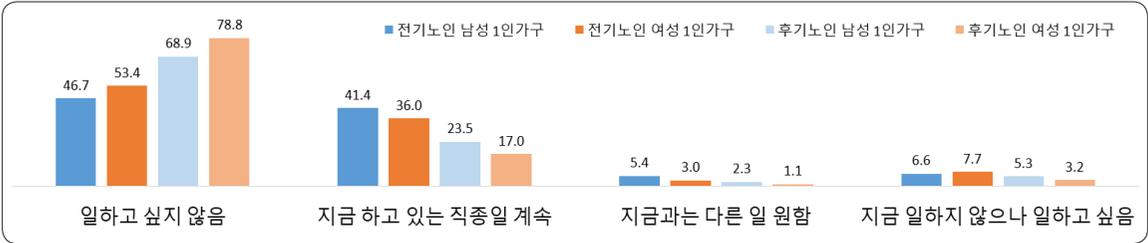
- 기본생활 충족을 위한 소득보장 강화: 전기노인을 위한 일자리, 후기노인을 위한 생계보장
- 노인일자리 확대
 - 전기노인의 절반이상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고, 절반이상이 근로를 희망([표7], [그림18])
 - 노인 일자리 중 임시/일용근로 비율이 높다는 점은 일자리 질 및 안정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
 - 건강한 노인의 경제활동은 생계비 마련의 목적 이외에도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관계망 활성화의 주요 수단이라는 점에서 노인일자리 환경 개선(차별금지 등의 인권개선) 감시 기능 강화필

[표8] 노인 1인가구 종사상 지위(2인 이상 가구 비교, %), 취업률(%), 평균 주당근무시간

| | 근로자 | | | 자영업자 | | 무급가족 종사자 | 기타(무직, 가사 등) | 취업률 | 주당평균주당 근무시간(시간) |
|------------------|------|-------|-----|------|------|----------|--------------|-------|-----------------|
| | 상용 | 임시/일용 | 특고 | 고용원유 | 고용원無 | | | | |
| 전기남성 1인가구 | 13.1 | 22.5 | 1.1 | 1.1 | 16.1 | - | 46.2 | 52.5% | 36.9 |
| 전기남성 2인 이상 가구 | 20.0 | 14.1 | 0.5 | 4.4 | 22.5 | 1.0 | 31.6 | | |
| 전기여성 1인가구 | 10.8 | 24.1 | 1.3 | 1.3 | 12.2 | 7.1 | 50.3 | 45.5% | 31.2 |
| 전기여성 2인 이상 가구 | 9.1 | 14.1 | 0.7 | 1.2 | 5.4 | 13.4 | 56.1 | | |
| 후기남성 1인가구 | 1.6 | 11.0 | - | 0.8 | 11.8 | - | 74.8 | 21.7% | 25.2 |
| 후기남성 2인 이상 가구 | 2.8 | 10.6 | 0.2 | 0.5 | 22.8 | 0.9 | 62.4 | | |
| 후기여성 1인가구 | 0.2 | 16.5 | 0.2 | 0.1 | 7.5 | - | 75.7 | 21.8% | 17.0 |
| 후기여성 2인 이상 가구 | 0.5 | 8.7 | 0.1 | 0.1 | 2.4 | 8.7 | 81.8 | | |
| 전기남성 1인가구(65~74) | 8.9 | 19.2 | 1.2 | 1.2 | 13.9 | - | 55.8 | 43.2% | 34.8 |
| 전기여성 1인가구(65~74) | 6.2 | 24.7 | 0.8 | 1.0 | 12.2 | - | 55.1 | 39.1% | 27.2 |

자료: 종사상 지위-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 원자료 분석.
취업률-평균주당근무시간-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22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18] 노인 1인가구 근로 희망 여부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20. 원자료 분석. 전기노인(65~74세), 후기노인(75세 이상).

- 노인일자리 확대가 생계 및 삶의 질 향상에 연동하기 위해서 공익활동 수당을 늘리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연계, 완화
-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퇴직 후 계속고용 유도를 위해 현행 시니어인턴십 예산 증액

현재 노인일자리 정부지원 유형

- 공익활동: 대상-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취약계층 지원, 노노케어, 공공시설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보육, 온종일 돌봄, 청소년 시설, 장애인, 노인시설, 안전관리,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 시장형사업단: 식품·공산품 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 운송(택배) 등
- 시니어인턴십: 계속고용 유도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후기 노인의 소득빈곤이 가장 큰 이유
 - 2021년 노인 1인가구(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수급(공적연금+사적연금)액수는 53만9천원(통계청 2023)
 - 이는 노령층의 개인 최소 노후생활비*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
 - *60대: 129만원, 70대: 113.4만원, 80대: 999만원(유희원 2023)
 - 기초연금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상향 등 전반적인 소득빈곤 문제 대응을 통해 빈곤 노인가구 문제 포괄
 - 노인빈곤문제의 절박성을 고려, 75세 이상 후기 노인빈곤 인구에 대해 한시적인 보충형 공적지원 제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물자산(부동산) 보유 노인 1인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등 자산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적극적으로 유도

○ 주거지원

- 소득 1~2분위 대상 노후주택, 쪽방 등 주택개선사업 확대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상향: 현행 기준중위소득 47%에서 100%까지 차등적 상향
- 돌봄지원주택: 돌봄 및 요양보호사 상주 가능한 셰어형 돌봄지원주택 제공

○ 건강지원

-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보건복지 사업은 노인요양(주거·의료 시설 등), 치매 및 건강보장(실명예방,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등),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맞춤돌봄, IoT 활용비대면 시범사업 등) 등
-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건강지원의 중요성
 - 노인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및 공동체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과 신속한 운영이 중요

- 영국 국립 보건임상 연구원(NICE)의 65세 이상 노인의 정신건강과 독립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는 노인을 식별하여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사회참여 활동 유도 및 유지 활동 가이드라인도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영국 NICE의 노인 정신건강 및 독립성 저하 식별 가이드라인

- | | |
|----------------------------|---|
| • 파트너가 지난 2년 이내에 사망 | • 저소득자 |
| • 간병인 | • 최근에 건강 문제를 경험했거나 건강이 악화된 사람 (병원 입원으로 이어졌든 아니든) |
| • 혼자 살고 사교할 기회가 거의 없음 | • 운전 포기자 |
| • 최근 별거 또는 이혼 | • 연령 관련 장애자 |
| • 최근에 은퇴(특히 비자발적으로 은퇴한 경우) | • 80세 이상 |
| • 노년기 실업자 | |

자료: 이민 외, 2022, 96.

- 만성질환을 포함한 통합적 노인건강관리체계 구축
 - 현행 고혈압, 당뇨병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정신건강까지 포함하는 노인건강관리체계로 확대 개편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행을 노인주치의제도로부터 시작
 - 노인통합진료에 적합한 수가체계 개선

○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 각종 사회단체(친목, 지역, 종교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그렇지 않는 노인보다 높음
 - 각종 사회단체 참여비율은 소득과 비례. 소득보장 기능은 생계문제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특히 노인 1인가구주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정책은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도움
-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경로당’의 각종 여가복지 및 급식프로그램에 1인가구 노인 참여를 적극 유도

[참고문헌]

- 성혜연. 2021.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4),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 유희원. 2023. “국민 노후실태와 연금제도의 역할” 민주연구원.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 토론회』 자료집.
- 이민 외. 2022. 『노인 건강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통계청. 2023. “보도자료: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10/26).